

이정현 “호남 국회의원들 편한 세상은 갔다”

당무 첫날, 지역 야당 국회의원들과 경쟁 선언

새누리 14일 순천시 최고위 개최 성사 ‘독심’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기위해 본때 보여줄 것”

지난 7·30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한국 정치사의 신기원을 이룬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당무 첫날인 11일부터 호남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서 여야 간 지역발전 경쟁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윤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이제 호남 국회의원들 편한 세상은 다 갔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야당 의원들은) 긴장 좀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은 공천만 받으면 설렁설렁해도 개표 시간만 기다리면 저절로 예외없이 당선이 됐다”며 “그래서 공천받는 게 우선이지, 지역민들 마음을 얻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선거 행태가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북에서 십수 년 동안 계속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유권자에게도 불행”이라며 “그런 정치 속에서 결코 경쟁력 없이 온실에서 큰 낙한 정치를 함으로써 지역민도 손해이고, 지역발전도 손해이고, 대한민국 정치발전도 손해였다고 본다. 저 이정현이 지금부터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지역 정서를 대변하기 위해 얼마나 현장을 많이 방문할지 본 때를 보일 것”이라며 “그렇다고 한다면 유권자들이 ‘순천의 이정현은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요?’라고 했을 때 (야당 의원들은) 많이 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임명 뒤 처음으로

참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4일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자고 제안해 이를 관철시켰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지역감정 해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지도부가 순천 지역을 방문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김무성 대표가 이 최고위원회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현장최고위원회의 순천 개최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 대표는 최고위 회의의 시작과 함께 이 최고위원을 직접 업어주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정현 최고위원이 당선되면) 업어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켰다”며 “국민을 업어드리는 새누리당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최고위원은 “이번에 호남에서 참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위대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국민이 보답하고 부응해야 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감이 높다는 이 최고위원의 간곡한 (순천 최고위원회의 개최) 요청을 많이 방문할지 본 때를 보일 것”이라며 “그렇다고 한다면 유권자들이 ‘순천의 이정현은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요?’라고 했을 때 (야당 의원들은) 많이 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임명 뒤 처음으로



이정현 업어주는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을 업어주고 있다. /연합뉴스

존재 이유 잇은 인권위

윤일병 사건 등 軍 인권침해 진정사건 75% ‘각하’ 처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75%가량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0%는 ‘군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인권위는 국민의 공분을 산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진정을 접수, 현장조사를 하고도 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 기관이지만 윤 일병의 진실을 밝힌 것은 인권위도, 군 당국도 아닌 제보자와 시민 단체였다.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9~2013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1177건 중 인권위가 진정의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조치를 했음을 의미하는 ‘인용’이 된 사건은 75건(6.4%)에 불과했다.

반면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결한 ‘각하’는 875건(74.3%),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 ‘기각’은 213건(18.1%)에 달했다.

군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은 2009년 78건에서 작년 165건으로 배 수준으로 늘었지만 매년 인용률은 3~6%에 머물렀다. 이처럼 군 인권침해 사건 인용률이 극

히 저조하고 각하율이 높은 것은 인권위가 군 사건을 대할 때 그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부대는 외부와 접촉이 완전히 차단돼 있다. 또 진정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는 군의 조직적인 회유나 압박에 의해 피해자들이 진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각하 사유를 보면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가 58%(507건)로 가장 많았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나 진정이 접수된 경우’가 18.3%(160건)였다.

특히 군 당국이 인권위 진정이 제기되고 나서 뒤늦게 사건을 조사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각하 사유 중 ‘재판이나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9.9%(87건)였다.

인권위는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오 일병 측의 진정을 접수하고서도 “군 당국 수사로 해결됐다”며 각하했다가 뒤늦게 직권조사에 착수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군 관련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일괄적 인규정만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더욱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군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병사 ‘영창 징계’ 해마다 증가

재판절차 없이 인신 구속…지휘관 재량권 과도 지적도

일선 부대에서 재판 없이 병사의 인신을 구속하는 영창 징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육·해·공군 예하 부대의 영창 징계자는 1만 5660명으로 3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2.4% 증가했다.

징계 처분을 받아 군내 구치소에 입소하는 병사는 2009년 1만1830명, 2010년 1만2779명, 2011년 1만462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영창 징계는 폭행·가혹행위·언어폭력·지시불이행·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징계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다. 15일 이내로 구치소에 구금하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지시나 외부 기관의 징계 의뢰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3인 이상 7인 이하의 장교 및 부사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영창 처분을 의결하면 인권담당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 징계권자(지휘관)가 영창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신을 구속당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벼운 규정 위반 사항도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영창 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창 징계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대 영창 내에서 병사의 인권이 무시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또 구타·가혹행위 등 유사한 사안에 대해 영창처분과 형사처벌을 나누는 기준이 없어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일관성 없이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목포대 의대 유치 최선 다 하겠다”

이틀간 도의원 등과 지역발전간담회서 향후 활동 방안 제시

KTX 2단계 사업 ‘송정-목포’ 구간 건설·부채해소 문제 등

박지원 전 원내대표(사진)는 지난 9~10일 이틀간 목포에서 지역발전 간담회를 갖고 향후 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최일 목포대 총장, 윤진보 목포부시장, 목포지역 전남도 의원, 목포시의원 등과 간담회에서 우선

호남고속선철(KTX) 2단계 사업의 건설 구간이 ‘송정-목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 구간을 ‘송정-임성’으로 말하고 있으나 KTX 중차·시발역이 목포역으로 확정되

지 않으면 목포의 원도심은 더욱 황폐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년도에 확정될 송정-목포 간 노선은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역으로 확정되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목포대학은 20년 전부터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는 전국적으로 의사 수가 많다는 이유로 의대생수를 줄였고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목포대학 의과 대학 유치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고 최선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목포수협 이전 ▲신항만 배후부지 투자유치 ▲목포시 부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2013년 12월 26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골드리플 장학금 300여명 2,400만원 100대

다문화 가정 지원

이장 안두경 2013년 금고자선 2,607억원

당기순이익 1위 당기순이익 15억3천만원

출자배당금 5% 배당금 5.0% (한시 정가액 금리 1%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평지점 652-9203 주유사점 720-2880 울산지점 364-7557

2014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총결산 및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말한다 !!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생겨남 찾아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총차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4.8.13.(수) 2시/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사전예약)

강/의/내/용

- 2014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광주·전남 토지투자 새로운 전략 및 뜨는지역 대공개
-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전략
- 수익형 부동산 틈새 아이템 투자전략 대공개
- 3천~1억 토지투자로 월세받는 투자비법 공개
- 토지투자의 정석법 강의(부동산 어떻게 할 것인가?)
-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전략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전문가

(현)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영지부동산 아카데미 소장
(현)각종관광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전국 순회 부동산세미나 80회 이상강의
(현)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NAVER 영지R&D 부동산투자연구소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싱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판넬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지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www.hsegreen.com